

문학을 통한
계룡산국립공원
셀프탐방

「갑사로 가는 길」은 1972년 발표한 이상보 선생의 대표작으로, 한 때 고교 국어교과서(1975~1983년)에 수록되었던 단편소설이다.

계룡산의 남매탑 설화를 소재로 동학사에서 남매탑을 거쳐 갑사로 가는 여정이 부드러운 필치로 잘 그려져 있다.

이상보(1927년 ~)

전남 장성 출생. 국문학 박사. 한국수필문학회 회장 역임.
수필집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갑사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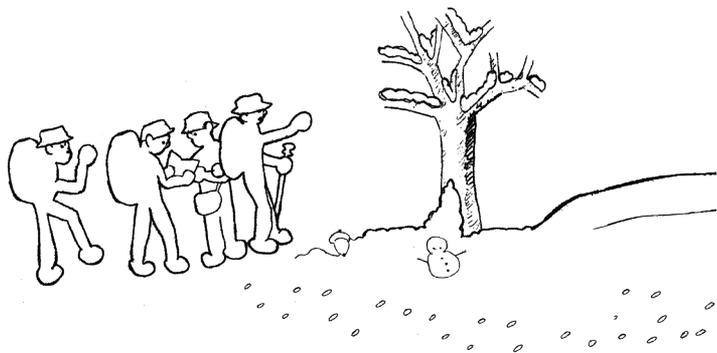


〈동학사 전경〉

지금은 토요일 오후, 동학사(東鶴寺)엔 함박눈이 소록소록 내리고 있다.

새로 단장한 콘크리트 사찰은 숨이불을 덮은 채 잠들었는데, 관광 버스도 끊긴 지 오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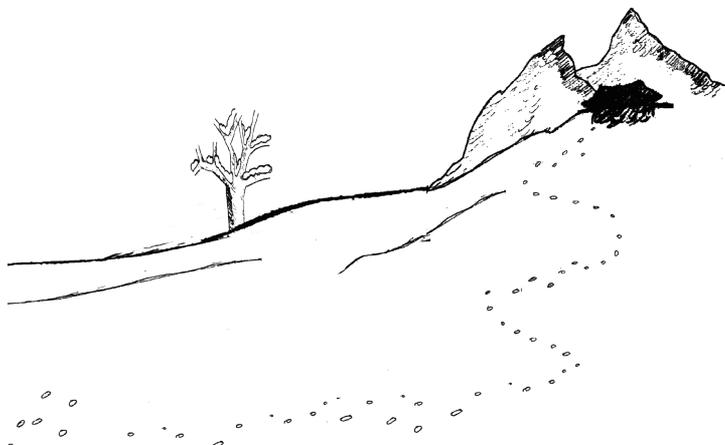
등산복 차림으로 경내에 들어선 사람은 모두 우리 넷뿐, 허전함조차 느끼게 하는 것은 어인 일일까?



대충 절 주변을 살펴보고 감사(甲寺)로 가는 길에 오른다.

산 어귀부터 계단으로 된 오르막길은 산정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어 팍팍한 허벅다리만 두들겼다.

그러나 지난 가을에 성장(盛裝)을 벗은 뒤 여윈 몸매로 찬 바람에 떨었을 나뭇가지들이, 보드라운 밉크코트를 입은 듯이 탐스러운 자태로 되살아나서 내 마음을 다사롭게 감싼다.



흙이나 돌이 모두 눈에 덮인 산길을 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오르는 우리들은, 마
치 북국의 설산이라도 찾아간 듯이 아취(雅趣)
에 흠씬 젖는다.

원근을 분간할 수 없이 흐릿한 설경을 뒤돌
아보며, 정상에 거의 이른 곳에 한일자(一字)로
세워 놓은 계명정사(鷄鳴精舍)가 있어 배낭을 풀
고 숨을 돌린다. 뜰 왼편 가에서는 '남매탑'이
눈을 맞으며 먼 옛날을 이야기해 준다.

때는 천사백여 년 전, 신라 선덕여왕 원년인데, 당나라 스님 상원대사가 이 곳에 와서 움막을 치고 기거하며 수도할 때였다.

비가 쏟아지고 뇌성벽력이 천지를 요동하는 어느 날 밤에, 큰 범 한 마리가 움집 앞에 나타나서 아가리를 벌렸다.

대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은 채 염불에만 전심하는데, 범은 가까이 다가오며 신음하는 것이었다.

대사가 눈을 뜨고 목 안을 보니 인골(人骨)이 목에 걸려 있었으므로, 뽑아 주자, 범은 어디론지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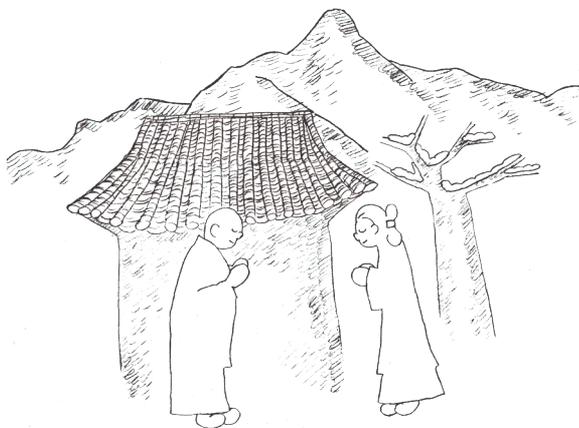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뒤 백설(白雪)이 분분하여 사방을 분간할 수조차 없는데, 전날의 범이 한 처녀를 물어다 놓고 가 버렸다.

대사는 정성을 다하여, 기절한 처녀를 희생시키니, 바로 경상도 상주읍에 사는 김화공(金和公)의 따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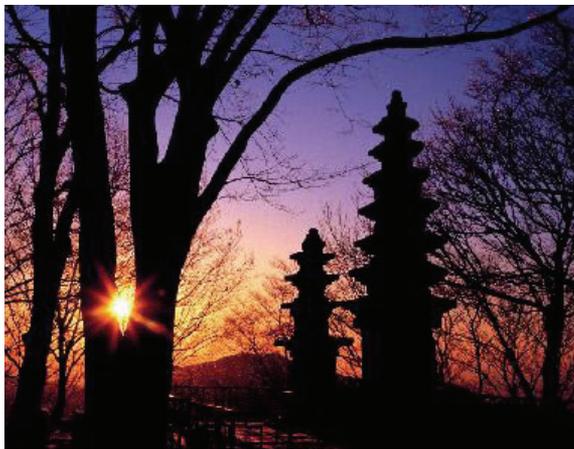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자 하였으나, 한겨울이라 적설(積雪)을 헤치고 나갈 길이 없어 이듬해 봄까지 기다렸다가, 그 처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전후사(前後事)를 갖추어 말하고 스님은 되돌아오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김 처녀는 대사의 불심에 감화를 받은 바요, 한없이 청정한 도덕과 온화하고 준수한 성품에 연모의 정까지 골수에 박혔는지라, 그대로 떠나 보낼 수 없다 하여 부부의 예(禮)를 갖추어 달라고 애원하지 않는가?



김화공도 또한 호환(虎患)에서 딸을 구원해 준 상원스님이 생명의 은인이므로, 그 은덕에 보답할 길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자꾸 만류하는 것이었다.

여러 날과 밤을 의논한 끝에 처녀는 대사와 의남매의 인연을 맺어, 함께 계룡산으로 돌아와, 김화공의 정재(淨財)로 청량사(淸涼寺)를 새로 짓고,



〈남매탑〉

암자를 따로 마련하여 평생토록 남매의 정으로 지내며 불도에 힘쓰다가, 함께 서방 정토로 떠났다.

두 사람이 입적(入寂)한 뒤에 사리탑으로 세운 것이 이 ‘남매탑’이요, 상주(尙州)에도 이와 똑같은 탑이 세워졌다고 한다.



〈갑사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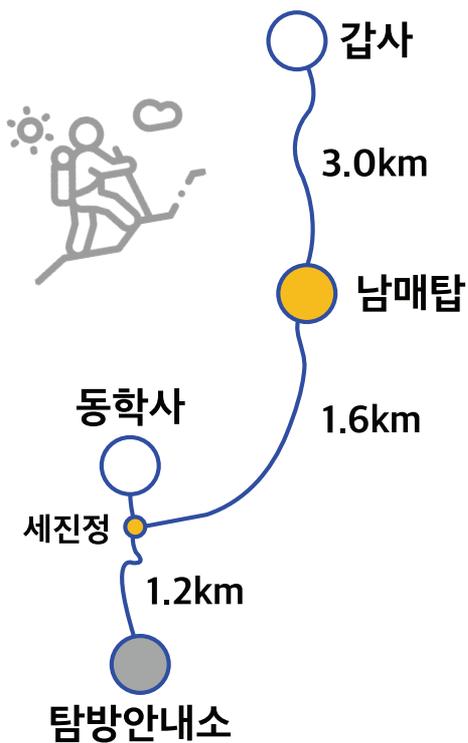
눈은 그칠 줄 모르고, 탑에 얽힌 남매의 지순한 사랑도 끝이 없어, 탑신에 손을 얹으니 천년 뒤에 오히려 뜨거운 열기가 스며드는구나!

얼음장같이 차야만 했던 대덕(大德)의 부동심과, 백설인 양 순결한 처자의 발원력, 그리고 비록 금수라 할지라도 결초심(結草心)을 잃지 않은 산중 호걸의 기연이 한데 조화를 이루어,

지나는 등산객의 심금을 붙잡으니, 나도 여
기 며칠 동안이라도 머무르고 싶다.

허나, 날은 시나브로 어두워지려 하고 땀도
가신 지 오래여서, 다시 산허리를 타고 갑사로
내려가는 길에, 눈은 한결같이 내리고 있다.

남매탑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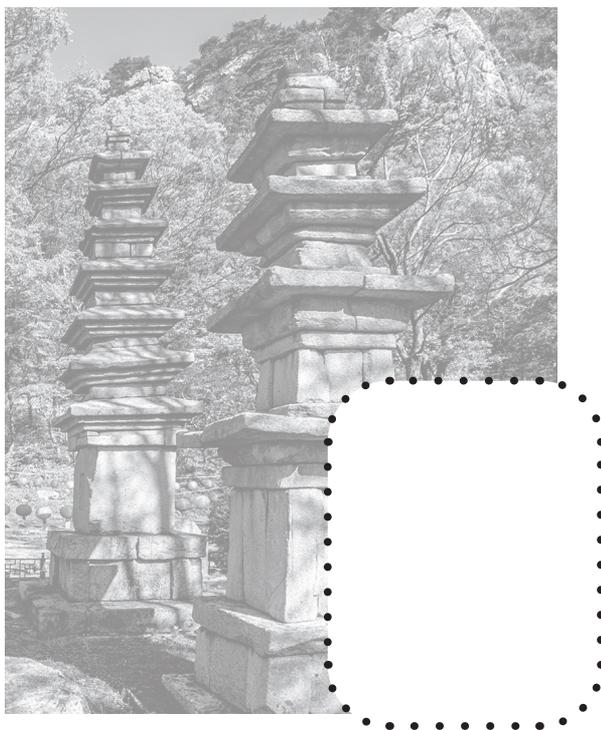
계룡산국립공원은

1968년에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주로 충남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룡산(鷄籠山)은 주요능선이 마치 ‘닭의 벼슬 쓴 용의 모습’ 같다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남매탑은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상원암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매탑이 있는 이 곳에 청량사(淸涼寺)가 있었다 하여 청량사지 5층석탑(보물 제1284호), 청량사지 7층석탑(보물 제1285호)이라 하며 계룡 8경중의 하나로 ‘남매탑의 명월(明月)’로도 유명합니다. 고려시대 석조 불탑으로 백제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탬프



탐방일자 : _____

갑사로 가는 길

발행일

공동 발행처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27-6
종합출판 범우(주)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9-13(문발동)

공동 발행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정옥
종합출판 범우(주) 윤행두 · 윤재민

공동 기획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윤지호 · 신의영 · 이 향 ·
최대석

종합출판 범우(주) 편집부

전 화 042) 825-3002 팩 스 042) 825-5755

홈페이지 <http://www.knps.or.kr/gyeryong>